5강

가족 역할과 거주 공간의 신성화,
<문전본풀이>

가족 역할과 거주 공간의 신성화, <문전본풀이>

이현정(제주대학교 강사)

제주 심방들은 <문전본풀이>를 구연하며, '들 적에도 문전, 날 적에도 문전(시여 나도 문전 시여 들어도 문전)', '문전 모르는 공사 없다.' 라는 말명을 실피 읊는다. 이 말명에는 한 집안을 오가는데 문전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며,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정을 문전신이 코콜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집안에서 벌이는, 벌어지는 온갖 일은 문전신(문전감상)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자칫 문전을 '문(門)' 이라 단순하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집안에서 문은 몇 개든 있다. 침실, 부엌, 측간에도 문이 있다. 어찌 보면 정낭도 일종의 '대문' 이다. 문전신은 분신술을 써서 이들 문문마다 좌정하거나 이 문 저 문 옮겨 가며 지켜 서지는 않는다. 문전은 정확하게 '상방(마루)' 의 앞문을 의미한다. 그 공간적 기능이나 의미를 현관(玄關)에 빗대어 쉬이 이해할 수 있다. 상방은 현관과 마찬가지로 집안 대부분의 공간과 연결되는 나들목(출입구)이자 모든 생활(대소사)이 벌어지는 중심에 놓인다. 문전신은 바로 이 상방의 길목을 지켜 서는 댁내 감상관이다. 문전이 신성성을 부여받고 인격화 되며 공간 개념을 넘어 '가족' 이란 집단적·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비중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문전신인 것이다. 이러한 문전신의 좌정 내력을 말하는 신화를 <문전본풀이>이라 한다.

제주에서 <문전본풀이>는 꽤 폭넓은 전승 범주를 지닌다. 심방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른 본풀이에 비하여 <문전본풀이>는 꽤 잘 알고

있는 편이다. 게다가 ‘남녀 구분 없이’ 이야기의 큰 흐름을 꿰어 안다는 점도 유다르다. 굿이나 본풀이와 같은 무속 신앙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문전본풀이>가 흔드는 셈이다. 여기에는 무속 신앙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육지부와 다른 제주만의 특별한 의례, ‘문전제(문전고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문전제는 명절은 물론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뒤에도 지낸다. 집안에 소소한 별일이 있으면 매 건마다 문전신에게 고하는 문전제를 지내기도 한다. 기제사에도, 새 식구를 맞이하는 첫 관문에서도, 아들이 군대를 갈 때도, 손주가 수능을 칠 때도, 물 건널 일이 있을 때도 제주 사람들은 문전에 꼭 정성을 드렸다. 집안 내력이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하면서도 제각기 맞이하는 삶의 다양한 분기점들이 켜켜히 쌓여 가며 다져지는 것인데, 문전신은 늘 한 집안의 대소사를 가족구성원과 함께한다. 그만큼 제주에서 문전신이 지니는 신앙적 의미와 의상은 특별하면서도 일상적이다.[1)]

<문전본풀이>에 따르면 문전신을 차지한 주인공은 남선비와 여산부인의 일곱째 막내아들인 녹디셍인이다.[2)] 남선비와 여산부인은 아들만 일곱을 낳았는데, 그 중에 녹디셍인이 가장 “똑똑하고 역력”했다. 여산부인으로 둔갑한 노일저데귀일의 딸을 유일하게 알아챈 이도, 노일저데귀일의 딸의 꾀를 간파하고 이를 타개할 계책을 마련하고자 앞장 선 이도 녹디셍인이었다. 눈썰미가 예리하고 영민하여 악재와 위기를 막아서는 솜씨가 남달라, 집안팎에서 벌어지는 제반 사정을 살피고 가족의 안위를 수호하는 가신(家神)으로 좌정하기에 더없이 알맞은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 할 수 있다.[3)]

---

1) 문전신앙과 문전제가 제주만의 특별한 토속적·전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흥미로운 대상이다. 문전제는 정기적이면서 비정기적으로 치러진다. 문전철갈이(벨롱겡이), 포제 혹은 명절 제사 이후에 지내는 문전제 등은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것인 반면, 기제사나 잔치 또는 이사 시 행하는 문전제, 가족구성원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치르는 문전제 등은 비정기적인 의례이다. 문전제와 관련된 문전신 신앙은 그 토대를 민속(무속) 신앙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례의 성격을 살피면 무속식(굿 또는 비념)뿐만 아니라 유교식, 불교식으로도 행해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런 제 사정들은 육지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2) 이본에 따라 달리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이나 인물의 특성을 살필 때, 문전신의 신직을 부여받는 대상은 그에 걸맞는 기지와 능력의 소유자인 녹디셍인이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명 또한 각양각색이다. 이 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남선비, 여산부인, 녹디셍인, 노일저데귀일이 딸로 통칭한다.

3) 강정식 역시 녹디셍인이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어머니의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단번에 그 정체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를 검증하고 결국 그 시도를 좌절시키는 행적들은 집안의 출입구를 지키면서 드나드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집안을 지켜주는 존재인 문전신의 직능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문전신의 기능과 역할을 <문전본풀이> 제차에서 행해지는 <오방기 품>과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강정식, 『제주굿 길잡이의 이해』,

녹디셍인이 문전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는 처첩 간의 갈등이 빚어낸 일련의 비극이 자리한다. 본처인 여산부인과 그 자리를 탐하려든 노일저데귀일이 딸,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놓인 몰명한 남선비의 삼각관계가 문전신 좌정을 견인하는 핵심 사건이다. 이 삼각관계 서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노일저데귀일이 딸의 악행인데, 남선비를 등쳐 먹고 여산부인을 주천강 연못에 빠뜨려 죽인 것도 모자라 일곱 형제를 몰살하려 드는 전형적인 계모형 인물이다. 〈차사본풀이〉의 과양셍이 각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희대의 악녀가 노일저데귀일이 딸이다. 제주에서 통용되는 심한 욕 중에 “꼭 노일저데귀일이 뚤 년추룩”이란 표현이 있었을 정도이다. 신격에 향한 세간의 평가와 인식이 어떠한지 알 만한 사례이다.

인과응보이지만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뒤에도 온몸이 찢어발겨지는 이중고를 겪고 나서야 ‘칙도부인(벤소 동토)’으로 좌정하게 된다. 남선비 역시 제대로 된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몰명하게만 굴었던 탓에 정낭에 목이 걸려 죽는 순탄치 못한 결말에 이른다. 이후 남선비는 올레와 정낭을 지키는 신인 ‘올레 주목 정살지신’으로 좌정한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고된 여정을 자처했고 남편에게 몹쓸짓을 한 노일저데귀일의 딸까지 포용하려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여산부인만이 억울한 죽음에서 되살아나 ‘조왕할망’으로 좌정하여 대우 받는다. 노일저데귀일이 딸, 남선비, 여산부인 모두 가신(家神)의 직능을 지닌 신격들이지만, 관련 의례의 양상을 따지면 이들 간의 위계가 꽤 분명하게 드러난다.[1)]

민속원, 2015, 248쪽.)

1) 〈문전본풀이〉에서 조왕신으로 좌정하는 여산부인은 심지가 곧은 어진 인물이라 할 만하다. 〈조왕비념〉, 〈조왕제(정초 의례, 정화수 의례)〉, 기제사 등의 관련 의례나 문전제와의 관계를 살필 때, 조왕신은 문전신 만큼이나 중요한 신으로 위한다. 그런데 제주 무속에서 조왕신에 대한 인식이 본풀이 상 여산부인의 이미지와 유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흥미롭다. 조왕신이 소위 ‘소도리젱이’라는 관념이다. 〈문전본풀이〉의 이본 가운데 여산부인이 위험한 처한 아들들을 구하기 위하여 꿈에 나와 살 방도를 일러준다는 대목과 판이한 인식이다. 예를 들면 조왕신이 옥항에 올라가 집안의 시시콜콜하게 잘잘못을 다 고해 바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조왕신을 잘 위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조왕신의 말실수 때문에 차사가 집안에 들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 등이다. 유사한 속성을 지닌 신격으로는 ‘청태산 마고할망’이 있다. 특히 조왕신의 사명신(司命神)적 속성은 대개 우리나라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정살지신으로 좌정한 남선비에 대한 의례는 〈각도비념〉에서 행해졌지만 지금에 와서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큰굿에서 〈각도비념〉의 주요 제차인 〈할망비념〉, 〈칠성비념〉, 〈조왕비념〉 등이 끝난 뒤 잡식 걸명을 할 때 올레 입구에서 여러 군벵들과 함께 주목정살지신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녹디셍인의 다섯 형이 좌정한 신격인 오방토신에 대한 의례 역시

〈문전본풀이〉는 거주 공간의 상관 관계는 물론 가족 역할이나 이들의 관계까지 신성화 한다. 처첩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모자 관계 등이 맺는 사건들이 제주에서 여러 가신의 내력담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신화가 이들 관계를 제주 특유의 주거 공간, 가옥 구조와 결부시켰기 때문이다. 달리 전승공동체가 가족 관계, 가족 역할의 기대 상을 가옥 공간, 가옥 구조와 연관하여 이해하며 가족 단위의 생활 규범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상호 기대하는 바(역할)를 수행하려 애써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습속이 제주 특유의, 유례없는 안택(安宅) 신앙과 〈문전본풀이〉를 마련하는 기저가 되었다.[1)]

〈문전본풀이〉는 주거 공간 가운데 올레, 상방, 부엌, 측간을 주요 공간 배경으로 삼았고, 이 중에 부엌과 측간의 관계망을 보다 도드라지게 형상화 하기 위하여 '처첩 관계'를 등장시켰다. 그리고는 두 공간의 관계 양상을 '선한 본처와 다슴어멍(계모)의 갈등', '다슴어멍의 악행'이라는 서사 장치로 특화하였다.[2)] 하지만 〈문전본풀이〉만을 두고 유독 제주사람들이 계모를 대하는 인식이 적대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슴어멍'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문전본풀이〉 외에도 제주 설화의 면면에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계모가 의붓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설화도 전승되거니와,[3)] '시앗 좋으면 세 몸이 한 몸 된다.', '시앗이 동서보다는

주목정살지신 관련 의례 양상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각도비념〉에서 위해지는 신격들과 자세한 제차 정보는 강정식, 앞의 책, 254~259쪽에 상세히 거론되어 있다.)

1) 〈문전본풀이〉의 동계서사물은 육지부에서도 전승된다. 이는 〈문전본풀이〉는 제주 특유의 것이지만 그 서사 얼개의 토대는 육지부의 것을 받아들여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표적으로 전북·전남지역의 〈칠성풀이〉가 〈문전본풀이〉와 많이 비교된다. 그밖에 함흥의 〈살풀이〉, 평양의 〈성신굿〉 등도 〈문전본풀이〉의 동계서사물로 분류된다. 전북·전남 지역의 〈칠성풀이〉의 줄거리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칠성님은 열일곱에 질대부인(매화부인)과 혼인하는데, 아들 일곱 쌍둥이를 낳는다. 칠성님은 금수나 벌일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질대부인(매화부인)을 소박하고 옥녀부인에게 후실 장가를 든다. 질대부인(매화부인)은 일곱 아들을 버리려다 중의 충고를 듣고 데려다 키운다. 아들들은 장성한 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칠성님을 찾아 간다. 이를 본 옥녀부인은 거짓 병을 앓는 체하며 점장이와 짜고 아들들의 애를 먹어야 한다며 칠성님을 속인다. 칠성님이 아들들을 죽이려 하자 금사슴(큰짐승)이 나타나 아들들을 구하고 자신의 애를 내어준다. 옥녀부인은 이 애를 거짓으로 먹는 체하다 발각된다. 일곱 형제는 옥녀부인을 응징하고 칠성신(혹은 북두칠성)으로 좌정한다. 옥녀부인은 죽어 두더지, 뱀, 모기, 깔다귀 등으로 변한다.

2) 이는 〈문전본풀이〉가 〈칠성풀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전본풀이〉는 처첩 간의 갈등이 주가 되는 서사이지만, 〈칠성풀이〉는 계모와 본처 소생의 아들들의 갈등을 주로 삼는다. 또한 〈문전본풀이〉의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어디까지나 첩이자 본처 소생에게 인정받지 못한 '어미'이다. 〈칠성풀이〉의 옥녀부인은 후실일지언정 본처와 대등한 지위를 획득한다. 무엇보다 〈문전본풀이〉와 〈칠성풀이〉의 차이점은 〈문전본풀이〉는 남선비와 노일저데귀일이 똘을 축줄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데 반하여, 〈칠성풀이〉는 칠성님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아 본래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의 〈문전본풀이〉가 세대의 대립과 전환의 문제, 가족 관계나 가족 질서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3) 대표적인 예가 〈오훈장과 그의 계모〉라는 설화이다.『제주설화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낫다.’는 속담도 전래되고 있다. 그러니 제주 역시 여느 지역처럼 계모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이 존재한다고 이해해야 옳다.

<문전본풀이>에서 다슴어멍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대폭 강조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가 본풀이(신화)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본풀이(신화)에서 선과 악은 어리석음과 현명함, 잘함과 못함, 윤리(도덕)와 비윤리(도덕) 등 극명하게 명암을 이루는 방향으로 묘사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신격적 특성과 관련 있는 일상 요소, 일반적 군상(인물)의 특성이 덧칠되며 지속적인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 본풀이에서 선악은 상극하지만 상생하고 반목하면서도 공존하는 존재이다. 선과 악도 잘함과 못함도 제주도 신화(신앙) 사고체계 안에서는 평행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극이다.

처첩 관계인 여산부인과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각각 ‘생산의 공간인 부엌[火, 陽]’과 ‘배설의 공간인 측간[泄(水), 陰]’을 차지한다.[1] 생산 기능은 여성성을 상징하니 생산도 배설도 모두 여신들의 몫이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생 관념이 관계 인식과 결부하여 신화 속에 스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목에 가면 관련 내용이 법지법(法之法)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니,[2] 가정 생활 규범 혹은 생활 윤리가 신화의 한 대목으로 스며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생과 비위생의 곱가름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이면에 존재한다. 생산과 배설은 불가분의 관계로 순환 구조 안에서 따로 또 같이 기능한다는 절대적 진리이다.[3]

생산 없이 배설도 없겠지만 배설은 생산을 견인하는 필수 전제이며 달리 배설은 음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생산이기도 하다. 아주 근본적인 이 이치는 노일저데귀일이 딸의 사체화생(死體化生) 대목

---

1) 여산부인과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지닌 속성을 대비하여 화식(火食)과 생식(生食)의 문화적 우열 관계로 해석하는 연구 견해도 있다. 각 신격이 해당 특성을 짐작케 하는 요소들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본래 있었던 토대를 가져다 가신신앙과 직결되는 사유들로 다지고 나서 남게 된 희미한 흔적 정도로 판단해야지 의도적인 설정은 아닌 듯하다. 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확대 해석인 듯 싶다.

2) “그 때 내온 법으로 벤소(便所)광 조왕(竈王)이 맞사민 좋지 못ᄒᆞ는 법이라, 조왕읫 거 벤소에 못가고 벳소엣 거 조왕의 못 가는 법입네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346쪽.), “조왕과 변소간은, 두 씨앗이 웬수(怨讐)가 돼난 조왕에 꺼 변소간에 가면 동토가 나고 변소에 꺼 부엌에 와도 동토가 납니다.”(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284쪽.

3) 허남춘은 “먹고 배설하는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의 행위로 존재하며, 이것의 모두 삶의 순환원리이기에 이 같은 본질적인 근거 하에서 선과 악이 함께 소멸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남춘, 「<문전본풀이>에서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21쪽.

에도 담겨 전한다.[1] 해당 대목과 하이누벨레 신화를 견주어 사체화생 화소의 원시성과 가치를 재고하는 연구도 있었다.[2]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제주의 영등 신앙에 시원을 짐작해 볼 단서가 있다.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 바당의 모든 어패류를 먹어 치우지만 결국 그가 떠난 뒤에 다시 해산물의 풍요가 찾아 든다는 신앙적 사유는 사회적 관계나 인위적 질서에 앞선 본질적 신성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원시적 사유가 사회·문화의 변화, 전승공동체의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계와 설정으로 재맥락화 된 예라 할 수 있다. 전승공동체의 지혜와 현명함이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여산부인과 남선비의 좌정 공간과 이들 관계에 따른 상징성도 심오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남선비는 올레 어귀를 관장하는 '올레 주목정살지신'이 되었다. 여산부인이 불씨를 지키고 선 부엌이 '살림'의 근간이라면, 남선비가 좌정한 올레(혹은 정낭)은 외부에서 내부를 비추었을 때 '한 집안의 시작'을 의미하는 근간이다. 올레(혹은 정낭)은 집안을 기준하면 집밖과 이어지는 최후의 경계이고 집밖을 기준하면 집안과 이어지는 최전의 경계이다. 예로부터 어귓돌을 올레 입구에 놓아 한 집안(가옥)의 시작과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지었고, 정낭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여산부인과 남선비는 내·외의 근간을 의미하는 주거 장소에 각각 신으로 좌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바깥 기둥, 모=안 기둥'라는 보편적인 역할과 의무, 부부의 가족 역할을 좌정 장소로 형상화 하면서도 제주 가옥 구조의 특성까지 충실하게 투영하고 있다.[3]

<문전본풀이>에서 부부 혹은 부모의 역할과 관계가 내·외의 근간을

---

1)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일곱 형제에 의하여 사체를 분산 당한다. 이때 두 다리는 변소의 디딜팡, 머리는 돗도고리, 머리카락은 해조류(페), 입은 솔치, 이빨은 거북손, 손톱과 발톱은 굼벗, 배꼽은 굼벵이, 음부는 전복, 남은 몸체는 빻아 모기로 변한다. 이본에 따라 이 조각이 뱀, 지네와 같은 해독(害毒)한 생물로 화생한다고 사유하기도 한다. 측간 관련 도구 외에 해산물의 기원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밖에 눈은 망원경, 귀는 무전기, 코는 침통, 입은 스피커와 마이크 등이 되었다는 특별한 전승도 있다. 비슷한 속성을 지닌 생물이나 사물을 가져다 기원신화의 구실을 삼는 양상이다.

2) 김은희, 「문전본풀이와 하이누벨레 신화의 비교 연구: '음식기원여신' 모티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8, 영주어문학회, 2014.

3) 이를 두고 허남춘은 "자녀를 중심에 두고 집 안팎으로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이 좌정하는 양상"이라 해석하였다. "어머니는 집안을 차지하여 먹는 것과 아이들의 양육, 가정교육을 담당하고 아버지는 집의 안팎을 연결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동네사람들과의 관계, 마을 공동의 일을 책임지는 가족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왕신과 정낭신의 관계에서 역할 분담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허남춘, 앞의 논문, 31쪽.)

의미하는 주거 장소와 그 거리로 일정하게 의미화 되었다면, 자식인 녹디셍인은 다시금 두 장소를 잇고 양자의 속성을 공유하는 장소에 '자식' 만큼의 거리를 두어 좌정한다.상방이 나들목(출입구)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은 남선비가 좌정한 올레(정낭)와 유사한 속성이다. 한편 상방이 살림채의 중심으로서 제사·접대·식사·여타 가사일이 벌어지는 장소이자 봉덕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은 부엌(정지)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게다가 상방은 실제로 가옥 구조 상에서 올레와 부엌(정지)를 잇는 장소이기도 하다.

녹디셍인은 부모 사이를 잇고 부모의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여러모로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다. 우매하지 않고 강단이 있으며 악을 징치할 수 있는 용기와 기지가 있었다. 그래서 녹디셍인은 아버지로 인하여 비틀린 기존 질서를 새롭고도 곧바른 질서로 전환하는 주역이자 집안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어그러진 질서를 잘못된 주체 스스로가 깨닫고 바로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대의 전환'이라는 순리 안에서만은 후대가 선대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더욱 현명하게 삶을 살아내길 바라는 편이 훨씬 가치 있는 선견이자 배려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남선비는 이 난제를 노일저데귀일이 딸이라는 방해꾼 때문에, 또 스스로의 우매함 때문에 풀어내지 못했다. 남선비와 노일저데귀일이 딸의 축출은 결국 올바른 새 질서의 정립을 위한 당위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두 존재는 완전히 거세되지 않는다. 녹디셍인 외에 다른 형제들도 주역이 아니라 해서, 주역보다 능력과 역할이 미약한 존재라 해서 배제되지 않았다.[1] 전승면에서야 혼란스러운 양상일 수 있지만, 제각기 나름의 역할을 관련 신앙 체계 안에서 부여하고 통합하는 전승층의 유연한 사고는 제주 신화, 제주 무속 체계를 관통하는 심성사적 가치이고 전승해야만 하는 삶의 지혜이다.[2] <문전

1) 녹디셍인의 형들도 신으로 좌정하는데 이 부분에 혼란이 많다. 문전신으로 좌정한 대상도 이본 간 달리 나타나기도 해서 논쟁 거리가 된 적도 있었다.보통 녹디셍인을 제외한 여섯 형제는 차례로 오방토신(五方土神)과 뒷문전 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전한다. 별도로 이본에 따라 남선비는 거리동티로, 위로 세 형제는 성주신(상성주, 중성주, 하성주)으로 좌정하였다는 전승과 남선비와 큰아들이 문전신과 정낭신으로 좌정하고 나머지 아들 형제들은 북두칠성(칠성신)이 되었다는 전승도 있다. 문전신 신앙과 성주신 신앙, <문전본풀이>와 육지부 <칠성풀이>, 문전신과 제주도 칠성 신앙(뱀칠성, 북두칠원성군), 정살지신 관련 의례와 <문전본풀이> 간의 상관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다.

2) <문전본풀이>에는 문전신앙뿐 아니라 성주신앙, 토신(터주신)신앙이 결합되어 있다. 실제로는 <문전제>, <성주풀이>, <토신제>로 개별 의례가 분리되어 있지만 본풀이(신화) 안에서는 이들 신앙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성주신과 관련된 신화는 별도로 전승되지만 <문전본풀이>처럼 큰굿 안에서 구연되지 않는다.

본풀이>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에 두고 ‘일상을 공유하는 밀착 관계(가족)’와 ‘일상 공간’의 귀중함과 위대함은 물론,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신성한 것이라는’ 명제를 일깨우고 있는 셈이다.